

■ 초코서당 명리학사 연대표(<https://chocosd.com>) *중국사에 대한 글을 미리 읽으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https://chocosd.com/6608/>

하(BC2000년)	상(BC1600년)	주 (BC1046년)	춘추전국시대		진 (BC221년)	한	
			춘추시대	전국시대		전한 (BC202-8)	후한 (25-220)
※ 신석기(BC8000년) -황하문명, 삼황오제 시대 -북희 하도, 8괘 제작 -하수 용마의 무늬 ※ 하나라(BC2000) -우왕 낙서 제작 -낙수 거북이 등의 무늬 -연산역(連山易) → 주역	※ 제정일치(신권정치) 1)왕이 정치, 종교의식 주관 2)수도 은허(유적 발굴) -갑골문자(한자의 기원) -달력 제작(태음력) -간지의 체계화: 황제의 이름에 간지 사용 -귀장역(歸藏易) → 주역 ¹	※유교 사상 확립 -천명사상+덕치주의 -문왕: 점의 체계화(문왕역), 과사 → 주역 -주공: 효사	※ 춘추시대(BC770-BC403) -음양론의 체계화 -공자 십익(十翼) 찬역 -공자 서경(書經) 편찬: 오행설 등장 ※ 전국시대(BC403-BC221) -제자백가 사상 -관자: 오행설의 초기(간지의 오행 배속) -추연의 음양가: 음양과 오행의 결합, 오덕중시설 ²	-역법 전옥력(顛頊曆): 60간지 체계→국가 공인 시간기록 단위 -亥월 입춘 시작 : 간지와 국가의 길흉화복을 연결(명리학의 이론→국가 통치 철학으로 확장) -여씨춘추: 오행상생과 계절의 순서 일치(토의 간절기 개념 확립), 천간의 오행 체계 확립	-유학 국교화(동중서 건의) -동중서 춘추번호: 천인감응론 ³ , 재이상서설 ⁴ , 오행과 오덕(五德)의 결합 → 통치 이데올로기 -태초력(입춘시작: 寅월) -구궁도: 수리적 우주관 -회남자: 유가, 법가, 음양가, 오행설의 통합 -황제내경: 의학서, 오행의 상모(相侮) 관계 서술	-왕충 논형: 명정론 ⁵ , 천인감응론, 음양오행의 신비화 등 비판 -경방: 주역64괘에 오행과 간지를 결합, 육효 창시	
위진남북조 수	당 (618~907)	송 (960~1279)	원 (1271~1368)	명 (1368~1644)	청 (1616~1912)	중화민국 이후 (1912~)	
※위진남북조(220-581) -인도 점성술의 유입(날짜·절기 중심→출생 시각 중심, 칠정사여로 발전) -곽박:옥조신응진경(서자평 주석 이전의 원본)	-인도·이슬람 천체력 유입→천문역법 발전 -달마일장금: 인도점성술+간지 결합 -낙록자부(삼명소식부) ⁷ : 명리 고전의 교과서 -이허중: 이허중명서/귀곡자유문서 ⁸ (납음오행·신살·태원 중시) -옥조신응진경 ⁹ : 진대 곽박 원문, 장옹 주석(생극제화 중심, 사주 용어 최초 등장) ※ 고법 ¹⁰ →신법의 과도기	-서자평: 낙록자삼명소식부주, 옥조신응진경주, 명통부 ¹¹ (신법 이론 정리) -오행전도론 ¹² , 연해, 연원: 서승(서대승) -낙록자부주: 낙록자 원문, 석담영·왕정광·이동 주석 ※ 자평명리(신법) 시작 1)연주→일간 중심 2)신살·납음→명의 구조 분석 중시	-자평명리의 침체기: 1)성리학의 비주류화 2)점성술의 유행 3)사대부 계층의 몰락 등	-적천수 ¹³ : 유백은 -연해자평: 당금지가 서승의 연해, 연원을 합쳐서 간행 -삼명통회 ¹⁴ (만민영): 관의 지시로 만민영이 편찬, 명리학의 백과사전 -신봉통고벽류 명리정종(장남) ¹⁵ : 신살비판, 개두설, 병약설 등으로 자평학을 보완·발전 -난강망 ¹⁶ (작자미상): 조화원약·공통보감의 원문	-명리약언 ¹⁷ (진소암): 신살비판, 역부론 발전의 주춧돌 역할 -자평진전 ¹⁸ (심효침): 격국론의 교과서 -적천수천미 ¹⁹ (임철초): 역부론의 교과서 -조화원약: 난강망 편집본 -공통보감(여춘태): 조화원약 재편집, 조후론의 교과서	-서락오: 자평수언 ²⁰ , 자평진전평주, 적천수징의, 조화원약평주, 조화원약평주→고전에 대한 가장 방대한 주석 -위천리(홍콩): 정성명리약언, 명학강의, 팔자재요(일간,월령,시지를 바탕으로 한 실전 매뉴얼), 고고집(상담 사례 모음) -원수산(대만): 명리탐원(명리 역사서), 명보(역사 속 주요 인물의 명조 분석)	

- 1 **주역** 크게 과사, 효사를 기록한 경문(經文)과 해설서인 전문(傳文)으로 나뉜다. 주역은 8괘를 만든 복희, 64괘를 만들고 과사를 단 문왕, 효사를 단 주공, 그리고 십익(해설서)을 쓴 공자, 이렇게 네 사람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 2 **오덕중시설** 왕조에 부여된 오행의 덕의 운행논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흥폐가 교체된다는 이론으로, 각 제후들에게 역성혁명을 통한 천하 통일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 3 **천인감응설** 하늘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상으로, 자연의 변화 양상을 통해 인간의 운명을 파악하려는 사주명리학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
- 4 **재이상서설** 천인감응설을 바탕으로, 의지를 지닌 하늘과 인간 세계의 통치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 사상. 하늘은 군주가 부도덕하거나 정치를 그르치면 하늘은 가뭄, 홍수, 지진 등 재난을 일으켜 경고를 보내고, 반대로 군주가 덕을 펼치면 무지개나 상서로운 구름을 만들어 이를 칭찬한다고 여겼다. 절대적인 황제의 권력을 유교의 도덕성을 통해 견제하려는 사상적 장치로 기능했다.
- 5 **명정론** 인간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다는 관점으로, 자연의 질서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고 이해하는 사주명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왕충은 인간의 부귀빈천, 수명, 성패가 개인의 노력이나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받은 기(氣)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다만 그에게 하늘은 상벌의 의지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목적 없이 움직이는 자연에 불과했다. 따라서 인간이 모든 것을 의지나 도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경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했다.
- 6 **오행대의** 지장간의 개념이 최초로 수록되고, 간지별 음양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최초의 문헌. 한대에 시작된 간지와 오행의 결합이, 이 시기에 체계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명리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7 **낙록자부** 전국시대의 전설적 인물 낙록자가 고법 사주학의 이론을 서술한 책. <삼명소식부>로도 불리나, 삼명통회에서는 <소식부>로 기록하고 있다. 후에 서자평이 이 책에 주석을 달아 쓴 <낙록자삼명소식부주>는 서자평의 다른 저술 <명통부>와 함께 신법 사주 체계의 초석이 되었다. 석담영, 왕정광, 이동 등의 명리학자들이 <낙록자부>에 주석을 단 저술이 <낙록자부주>이다. <낙록자부>는 녹, 명, 신 삼원론, 왕상휴수사에 따른 십이운성론, 운이 바뀌는 시기에 대한 운한론, 신살론, 둔월법, 둔시법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 8 **이허중명서** 당대의 이허중이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 인물 귀곡자가 쓴 글에 주석을 단 문헌. 단, 당대에는 저술된 기록이 없어 송대에서야 이 책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명대 이후에는 <귀곡자유문서>라고도 불렸다. 납음오행과 어머니의 태중에 있던 기운(胎元)을 중요하게 여긴 고법명리학의 체계가 담겼다. <낙록자부>와 <이허중명서>는 고법 사주명리학의 체계가 담긴 교과서에 해당된다.
- 9 **옥조신응진경** 명리학사에 있어 최초로 사주(四柱)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동진시대 인물 광박의 저술을 원문으로 한 장옹의 주석본. 사고전서에 남아있는 <옥조정진경>과 원문이 같아 <옥조신응진경>과 <옥조정진경> 모두 광박이 저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후에 서자평 역시 <옥조신응진경>에 주석을 달아 <옥조신응진경주>를 내기도 했다. 오행의 강약, 부귀빈천, 직업, 길흉화복, 질병 등에 대한 판단법이 서술되어 있다.
- 10 **고법** 고법은 삼명학(三命學) 혹은 녹명학(祿命學)이라 불렸는데, 삼명학은 천간인 녹(祿), 지지인 명(命), 납음오행인 신(身)을 일컫는 말이다. 고법에서는 천간을 통해 관록을, 명을 통해 수명이나 건강을, 신인 납음오행을 통해 사람의 복록이나 기질을 살폈다. 삼명학은 명리학이 사주를 살피는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던 태동기에 형성된 관법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천간과 지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은 뒤 다른 주와의 관계 속에서 사주를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 11 **명통부** 송대의 서자평이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명식을 해석하는 자신만의 이론과 관법을 별도로 기록한 책. 고전에 주석을 달면서도, 본인의 책은 따로 저술하지 않는 저술 문화에서 벗어난, 명실상부 자평명리학의 시원을 이루는 중요한 문헌이다.
- 12 **오행전도론** 목이 토를 극하지만, 토가 너무 과다하면 오히려 나무가 파묻히는 것처럼 오행 강약의 상태에 따라 생이나 극의 흐름에서 벗어나, 오행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입장이 뒤바뀐다는 이론. 서승의 오행전도론은 생극제화의 단편적, 도식적 해석을 넘어, 기운의 상호작용을 더욱 입체적이고 유동적으로 파악하도록 만들었다. 명리학이 전체의 구조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이론이다.

13 적천수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책사인 유백온(유기)이 썼다고 알려진 책. 매우 간결하고 함축적인 시구 형태로, 명리학의 정수를 담고 있다. 후대 학자인 진소암은 <적천수>에 주석을 단 <적천수집요>를 출간하며 <적천수>의 실제 저자가 유기의 이름을 가탁하여 쓴 책으로 보았다. 반대로 서락오는 <적천수보주>를 쓰며 유기가 홍무제의 미움을 피하기 위해 <적천수>를 편찬하며 자신의 이름을 일부로 숨겼다는 견해를 냈다. <적천수>는 하늘의 이치를 물방울처럼 담은 정수라는 뜻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최초의 <적천수>는 송나라 경도가 썼고, 후에 유백온이 <적천수>에 주를 단 것으로 보고 있다.

14 삼명통회 고법인 신살과 납음오행, 신법인 자평법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명리학의 백과사전. 명만력 1578년에 삼명학, 자평학, 서양점성학인 오성학에 능통했던 만민영이 관의 주도의 편찬했다. 특히 신살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어 가치가 높지만, 명리학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나열만 했을 뿐 하나의 정리된 관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15 명리정종 일명 <신봉통고> 혹은 <신봉벽류>라고 불리는 장남의 명리학 저술. 장남의 호는 신봉으로 <명리정종>의 전체 이름은 <신봉통고벽류명리정종>이다. 잘못된 이론들을 바로잡아 명리학의 기틀을 바로세우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자평학의 여러 서적 가운데 최초로 실제 사주를 놓고 길흉을 판단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개두설, 병약설 등을 통해 자평학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16 난강망 조후론이 정리된 작자미상의 책. <난강망>에 인용된 명주들이 명나라 시대 유명인사들이므로 미루어 명대에 출간된 책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대 초기 흠전감(천문·역법 기구)에서 근무하던 유엽소가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보고, 교정, 편집하여 <조화원약>이라 이름 붙인 후 세상에 공개했다. 이를 청나라 말기 여춘태가 임으로 줄이거나 늘여 <궁통보감>으로 편찬했고, 1937년 서락오가 재출판하여 널리 유포시킨 후 조후론의 교과서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조화원약>은 대자연을 조화롭게 하는 열쇠, <궁통보감>은 궁구하여 이치에 통달케 하는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이다.

17 명리약언 청초 진소암이 격국론, 용신론 등 여러 명리학의 이론들을 억부론적 관점으로 집대성한 책. 기존의 복잡한 격국론을 간소화하고 합리화하려 노력했으며, 후에 억부론의 교과서로 불리는 임철초의 <적천수천미>의 탄생에 중요한 전거로 작용했다.

18 자평진전 청초 진사 출신인 심효침의 저술. 월령을 사주의 핵심으로 보고, 그 지장간에서 투출된 천간이 명식 전체를 주도한다는 격국론의 논리를 정교하게 체계화했다. 연해자평의 육신론에 입각하여 사길신과 사흉신의 격을 구별하고, 원국은 물론 운에서 달라지는 상신(相神)의 유입여부에 따라 격과 운의 성패를 논했다.

19 적천수천미 임철초가 유기의 <적천수>에 방대한 해석과 512개의 사주 명식을 억부론적 관점에서 증주한 책. '과다한 기운은 극하기 보다 생조하는 것을 더욱 반긴다거나', '왕한 자가 쇠한 자를 충하면 쇠한 자는 뿌리째 뽑혀 나가고, 쇠한 자가 왕한 자를 충하면 왕한 자는 더욱 발하게 된다'는 등의 관점은 억부론의 기존 논의를 심도있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왕사주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기존의 종재·종살·종아격에 더해 종왕격·종강격·종기격·종세격을 정립함으로써, 종격 이론을 한층 확장하고 독자적인 체계로 완성했다.

20 자평수언 용신법 중에 억부법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던 근대의 명리학자 서락오가 용신을 정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확립한 1938년 저술. 격국과 용신을 함께 지칭하는 격용론적 관점에서 격국론의 상신은 억부론에서 말하는 용신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둘은 엄연히 달랐다. 추후 명리학의 이론이 체계화되며 용신과 격국이 분리되고, 서락오의 자평수언에 이르러 용신을 정하는 원칙은 억부, 조후, 통관, 전왕, 병약으로 체계화됐다. 체용론의 관점에서 격국이론이 원국(體)을 중요시한다면, 용신론은 활용의 관점에서 운이나 개인의 노력(用)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

***다음 장에 중국사 연대표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신화의 시대 (BC170만-BC8000)	하, 상(은)	주 (B.C.1046년)	춘추전국시대		진 (B.C.221년)	한	
			춘추시대	전국시대		전한 (BC202-8)	후한 (25-220)
※ BC180만년 -구석기 시대 시작 ※ BC8000년 -신석기 시대 시작 ※ 황하문명 -삼황오제(복희, 여와, 신농, 황제, 전욱, 제곡, 제요- 요임금, 제순-순임금 : 요순시대) -치수(治水)를 통한 농경 발달	※ 하나라(BC2070) -황하 근방 -최초의 국가(계급사회) -왕위세습제 시작 -걸왕과 말희(주지육림) ※ 상나라(BC1600) -수도 은허(유적 발굴) -갑골문자(한자의 기원) -제정일치(신권정치) -달력 제작(태음력) -순장 유적 발굴 -주왕의 폭정과 애인 달기 -백이와 숙제(충신)	-봉건제도 도입(혈연제) -유교 사상 확립 -천명사상+덕치주의 -종법제(가부장제) -12대 유왕과 포사 -견융족의 침입 -호경→낙읍 수도 이전 (BC 770년)	※ 춘추시대(BC770-BC403) -춘추오패(제,진,초,오,월) -관중과 포숙아 -오합려, 월구차 -와신상담, 오월동주 ※ 전국시대(BC770-BC403) -진→한, 위, 조 세나라로 분열 : 전국7웅 -제자백가 사상 등장 ※ 사회경제적 변화(공통) -철기시대(춘추시대 말-전국시대 초 시작) -우경(소농사)의 보급 -농업생산력 증가 -상업의 발달	-진시황제(최초의 황제 호칭) -최초의 중국통일 -법치주의 통치이념 -문자, 화폐, 도로 규격 통일 -만리장성, 진시황릉, 아방궁 건립(대량 토목 공사) -분서갱유 -진멸망: 진승과 오광의 난 이후 제후반란	-유방(고조)의 중국 재통일 -한무제(전성기) 업적 1)군현제: 중앙집권체제 2)영토확장: 흉노 정벌, 고조선 멸망(BC108년) 3)유학의 국교화(동중서건의) 4) 실크로드 건설(장건) -전한 멸망: 왕망의 왕위 찬탈 -왕망의 신 건국(8) -사마천의 사기 집필	-유수(광무제) 후한 건국 -외척경계→환관의 권력화, 부패→백성 착취 →황건적의 난(184) -호족의 등장과 세력다툼(관도대전, 적벽대전) →위, 촉, 오 삼국시대(220) -훈고학 발달(진나라 때 소실된 유교 경전의 복원) -태학(유학 교육 기관)의 지방 확산 -인도의 불교 전래 -종이 최초 발명(채륜)	
위진남북조시대 (220~581)	수 (581~618)	당 (618~907)	송 (960~1279)	원 (1271~1368)	명 (1368~1644)	청 (1616~1912)	
-위,진,동진,남조,북조로 분열되던 혼란기 -후한멸망-수 통일까지 -8왕의 난, 영가의 난 -오호십육국(5개 유목민족들의 16개국) -불교보급: 원강석굴, 룡면석굴 등 -효문제(북위황제)의 낙양 천도, 급진적인 한족화 -문화예술 발전(왕희지, 도연명) -도가 사상 발전	-수문제의 중국 재통일 -과거제도 도입 -수양제 1)대운하 건설(북부, 남부 연결-2500km) 2)고구려 정벌(살수대첩) 3)수 멸망(618년)	-이연(고조)의 당 건국 -태종(이세민)의 고구려침략, 안시성 -측천무후: 최초의 여황제 -당현종과 양귀비 -안록산의 난: 지방분권시대 도래 -주천충(후량 황제)의 당 멸망 ※ 당멸망이후 약70년 : 5대10국 → 후주	-조광윤(태조) 중국 통일 -문치주의(주자학 정립) -요(거란),대하,금(여진)의 침략 -금→요 멸망(1125년) -송강의 반란(수호지) -곽경의 육갑신병 -남송 1)금의 침략으로 임안(항저우)로 이동 2)원에 의해 멸망(1234년) -모내기법 발명(경제발달) -나침반, 화약, 인쇄술 발명	-칭기즈칸: 몽골통일 -쿠빌라이칸: 원 건국 → 중국지배(대도 천도) -몽골제일주의: 신분제도(몽골인,색목인,한족,남송인) -동서교류확대: 역참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27년) -이슬람 수학, 천문학 전래 -과학기술 유럽 전파	-주원장(태조)의 명 건국 -영락제(전성기) 업적 1)베이징 천도 2)자금성 완공 3)정화의 남해대항해 -이자성의 난 -임진왜란(1592년) -양명학 발달 -서양문물전래 :곤여만국전도 제작	-누르하치(태조) 여진족 통합→후금 건국(청나라 전신) -홍타이지(태조) 칸→황제 칭호 변경/ 국호 변경(청) -병자호란 -한족지배: 회유책,강경책 -변발, 호북 강요 -전성기: 강희제, 건륭제 -서양문물의 전래, 중국문물 유럽에 전파 -현재 중국의 문화, 영토, 민족의 기반은 청	